

추밀공파 파조 추밀공 추향제 봉행 및 정기총회 개최

권오돈 회장 직무대행 추밀공파 신임 회장으로 추대

추밀공파 파조 추밀공(樞密公)과 충헌공(忠憲公) 추향제가 10월 15일 일요일 10시 30분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산177에 위치한 추밀공과 충헌공 단소에서 권오돈 회장, 권경석 전 추밀공파회장, 권오상 대총회 사무총장, 권경일 사무처장을 비롯하여 권병선 창화공 종중 회장, 권병돈 정간공 종중 회장, 권오협 문충공 종중 회장, 권중달 대총회 종사연구위원장, 정철재 통각학장학회 이사장, 권동원 참의공 종중 회장, 권영익 목사공 종중 회장, 권순호 전 매현공 회장, 권오영 전 강릉종친회장, 권혁윤 전 강릉종친회장, 권순주 원주종친회장, 권정택 행주서원 원장, 권광택 대총회 상임위원, 권석원 정헌공 종중 사무처장, 권영학 오현공 종중 회장, 권길형 오현공 종중 사무국장, 권기준 문경공 종중, 권병돈 창수공 종중 회장, 권순용 전 서울청장년회 사무국장, 권선출 대총회 이사, 권오섭 문충공 종중 사무국장, 권오달 종보편집위원, 권행완 편집국장 등 250명의 참제원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참제원들은 서울에서는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8번 출구 앞에서 대형버스 2대로 이동했고, 대전 참의공 종중에서 대형버스 1대, 충주 문충공 종중에서 대형버스 1대, 김포에서 대형버스 1대 등 대형버스 5대와 소형 1대를 비롯해 자가용 승용차 50여대로 임진강 전진교 검문소 앞에 일단 집결하여 검문소의 철저한 확인 절차에 따른 허락을 받은 후하여 추향제가 거행되는 단소까지 이동할 수 있었다.

추밀공 추향제는 초헌관 권이신, 아헌관 권충원, 종헌관 권오협, 집례 권영준, 대축 권영부 등으로 분방하여 봉행하였다. 권경일 사무처장은 그동안 돼지 열병과 코로나19로 인해 묘역에서 제향을 드리지 못했는데 5년 만에 단소에서 많은 후손들이 모인 가운데 추향제를 지내게 되었다고 말했다.

추향제가 끝나자 추밀공파총회 정기총회를 권경일 사무처장의 사회로 개최했다. 권오돈 회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어려웠다. 오늘 날씨도 좋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다. 종중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경석 전 회장은 추밀공파는 안동권씨 100만 가족의 15개 파중에 35%를 차지하는 가장 큰 파임에도

다. 그런데 임기 중에 아파서 대행체제로 갔었다. 그러나 권오돈 회장이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권병선 임시의장이 권오돈 회장 추진 건을 상정하자 참석자 전원은 큰 박수와 함께 만장일치로 추진했다. 권오돈 회장은 취임사에서 죽은 여러 분께서 추대해 주시니 열심히 하겠다. 영어 독어는 잘하는데 한문은 미숙하다. 새로운 것들을 발굴해서 현조들의 업적이 드러날 수 있게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권석원 사무처장은 권경석 전 회장이 회관 기금 조성 등으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 그 노고에 대해서도 힘찬 박수를 부탁한다고 하자 참석자들은 큰 박수를 보내며 환호했다. 이어서 감사 선출을 했다. 창화공계 권병문 감사와 문충공계 권영갑 감사는 다시 선출되고, 정헌공계 권중주 감사가 새로 선출되었다. 권중주 신임 감사는 인사말에서 막중한 중책을 맡게 되어서 어깨가 무겁다. 한국전력연구원에서 평생 과학자로 지냈다. 작은 힘이지만 파종회가 뜻한 바를 이룰 수 있게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기총회가 끝나자 일행은 충헌공 단소로 이동하여 추향제를 봉행했다. 초헌관 권오돈, 아헌관 권기준, 종헌관 권중주, 집례 권오상, 대축 권영부 등으로 각각 분방하여 봉행했다. 추향제를 마치고 참제원들은 주최측에서 마련한 점심을 먹고 귀향길에 올랐다.

이날 임진강은 안개가 끼어 있었고 누렇게 익은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안동권씨 추밀공 추향제 참제원 뿐만 아니라 다른 문중의 성묘객들도 많았다.

권행완 편집국장

고려 벽화묘의 주인공 추밀공파 창화공 추향제 봉행

고려 벽화묘의 주인공인 창화공(昌和公, 권준權準, 1281~1352)의 추향제가 10월 22일 10시 파주시 진동면에 위치한 묘역에서 권병선 창화공 종중 회장, 권병문 창화공 종중 총무, 권오돈 추밀공파 회장, 권태환(양주)·권병남(횡성) 족친 등 50여 명의 후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되었다.

창화공은 대제학을 역임하고 도첨의정승(都僉議政丞), 영가부원군(永嘉府院君) 국재공(菊齋公) 권보(權溥)의 맏아들로 길창부원군(吉昌府院君)에 봉해졌고 시호는 창화공(昌和公)이다.

이색의 목은집(牧隱集)에는 "선생은 지공거로서 이제현을 선발할 때 그 위인이 원도지기(遠道之器)임을 예견하고 마침내 사위로 삼으니 그 사람을 알아보는 지인지감(知人之鑑)이 이와 같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국재공 본인과 맏아들 창화공



를 비롯하여 사위 익재(益齋) 이제현(李齊賢, 1287~1367) 등 9명이 모두 봉군(封君)되어 우리나라 역사상 전무후무한 구봉군(九封君) 집안이 되었다.

창화공 추향제는 초헌관 권진록, 아헌

관 권오돈, 종헌관 권대성, 축관 권병문, 집례 권영부, 진설 권석원, 찬인 권용대, 집주 권순홍, 봉향 권혁기 등으로 분방하여 엄숙한 집례와 함께 헌작하였다.

권행완 편집국장

<특별기고> 권인호(權仁浩, 철학박사, 대전대 명예교수, 한국동양철학회 고문)

전통계승과 온고지신 및 민본적 정치철학의 실사구시적 실학정신 (40)



가와카미는 동경제대 정치학과 출신으로 언론인·시인·경제학자·교수로서 많은 논저(論著)를 남겼다. 그 가운데 1917년에 출간된 "가난이야기: 빈곤론(貧困論)"에서 유럽의 제1차 세계대전의 전쟁이 초래하는 것으로 벼락부자와 빈곤에 허덕이는 가난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 등 사회양극화 문제를 거론하여 많은 독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그는 K. 마르크스(Marx, 1818~1883)와 우치무라 간조(內村鑑三, 1861~1930) 등의 영향을 받았다. 우치무라의 무교회주의와 메이지 일왕의 「교육칙어(教育勅語)」(1890-1948)에 대한 국가주의 일방성격화 등을 비판하였다. 한국의 기독교 신학자인 김교신, 함석헌 등이 많은 영향을 받아 종교계와 학계뿐만 아니라 정치·사회계의 민주화·민주주의를 위해 운동을 벌였다.

적인 낡은 사상으로 치부하여 그는 '유교를 문명의 적'이라고까지 폄하한 것은, 그가 근대 서양의 학문에 심취하고 유럽에 유학하며 18세기의 유럽의 중국 배우기에서 19세기 초 독일 프로이선의 철학자 G.W.F. 헤겔(Hegel, 1770-1831) 이후 서세동점시기인 19세기 중반-20세기의 M.C.E. 베버(Weber, 1864-1920)의 동양의 사상과 종교에 대한 비판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었다.

하지만 이에 더하여 그가 '탈아론(脫亞論)'에서 아시아를 이야기할 때, 덕천막부의 관학인 주자학이 직접 영향을 받았던 나라인 중국과 조선을 자주 거론하며 폄하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는 류슈(九州) 북부지방 조그마한 번(藩)인 나카스 오쿠다이라(中津奥平) 번의 최하급 무사(武士 : 사무라이) 막내아들로 태어났기에 "어릴 때 하급무사 출신의 자녀는 상·중급 무사의 자녀에게 꼬박 꼬박 존대 말을 써야 했다." 그 자서전에 밝힌 정도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것 같다. 그의 아버지(하쿠스케百助)가 막내아들의 총명함을 보고 신분과 직업의 세습제에 절망하면서 그를 출세시키기 위해 승려를 만들려고도 했다 한다. 바로 19세기 일본의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후쿠자와가 덕천막부의 직업과 신분의 세습제(一人一技)는 바로 주자학의 '정분론'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유교·주자 성리학에 대해서 더욱 비판하며 이를 갈았던 것이 그 극복을 주장하게 이르렀다.

박정희(1917~1979.10.26, 대구사범, 만주신경관학교, 일본육사, 한국육사, 제3·4공화국 대통령)와 박종홍(朴鍾鴻, 1903~1976, 평양고보, 경성제대, 서울대 철학과 교수) 그리고 안호상(安浩相, 1902~1999, 중동학교, 독일 국립 예나 Jena 대학 철학박사, 조대 문교부장관, 독립운동가) 등과 함께 <국민교육헌장>을 기초하고 제정하여 1968.12.05에 발표하였다. 3산개헌, 동백림 간첩단사건, 1972년 '10월 유신(維新)' 영구집권과 국가주의 및 독재화로 치달았다가 이른바 '부마사태(부산·마산지역 민주화운동)' 등의 영향을 받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격으로 궁정중 연회에서 대통령 박정희와 경호실장 차지철이 사망하였다.

앞서 거론한 후쿠다의 주요저서로 『日本經濟史論』(1900)·『國民經濟講話』(1917-19)·『厚生經濟研究』(1930) 외에 1925년까지의 저작을 수록한 『福田德三經濟學全集』(1925-27) 등이 있다. 구미(歐美 : 유럽과 미국) 여러 제국주의 국가들이 서세동점(西勢東漸)하던 시기에는 앞 시대인 14-5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결정적 영향을 준 이슬람 문화나 사상 그리고 17-8세기 계몽주의 시대를 열어 준 16-7세기 동서서점(東勢西漸)으로 배운 중국(동북아) 유교문화권의 영향(변규룡, 『근대서구사상의 형성과 동양정신』, 『동양학술회의논문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75/ 주경지, 전홍석 옮김, 『중국이 만든 유럽의 근대』, 『근대 유럽의 중국문화 열풍』, 창계, 2003.)을 거꾸로 폄하하고, (O. 에렌탈리즘(E.W. 사이드Said, 1935~2003, 팔레스타인 출신,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수)으로 왜곡날조 하였다. (『문화와 제국주의』)

특히 '난(蘭 : 화란 : 네덜란드)'학파에서 '영(英 : 영국)학파'로 변신하여 유럽에 다녀온 일본의 계몽사상이 근대 개화론자인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1901, 류슈지방 지방의 최하급무사의 막내출신, 게이오기주쿠慶應義塾대학 설립(1858년)자, 1984-현재 일본 최고액권 1만엔壹万丹 초상인물)는 '탈아론(脫亞論)'을 내세우며 유교사상을 전근대

덕천막부의 쇠국정책 아래에서도 류슈(九州) 나가사키(長崎)의 데지마(出島)를 내덜란드 동인도회사에 개방했었던 막부는 1853년 미국 매튜 C. 페리(Perry) 제독의 동경만(東京灣) 무력시위에 굴복하여 통상요청(정식으로 통상조약은 1858년 체결)으로 문호를 개방하였다. 이후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여러 나라(諸國)의 연합함대의 포격으로 1865년 외국의 여러 조약을 허가하였다. 이어서 '명치유신으로 일본은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2-30년 늦게 문호를 개방하거나 근대 개혁이 늦은 한국과 중국을 일본은 서양 제국주의 동양 침략과 식민지 건설을 모방하여 한국과 중국을 개항하고 침략해 들어왔다. 일본이 이른바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대(1912-1925)를 거쳐 인간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정제에 대한 사상과 정책에서 민주공화국의 국제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막부시대 정분론에 가까운 (임한)군주국과 직업신분의 세습에 머물러 있다고 본다.

일본은 미국을 모방하여 1868년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의 '정한론(征韓論)'을 시작으로 1875. 4. 운양호(雲揚號)를 부산에 입항하고 다음 해인 고종 13년(1876. 2월)에 우리 대표 전권대관 관중추부사 신원(申權, 1810~1884)과 부총관 윤자승(尹滋承) 및 전권변리대신 구로다 기요타카(黒田清隆)와 부대신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등이 통상조약 체결을 위해 남양만에 도착하여 불평등조약인 '강화도조약(朝日修好條規 : 병자수호조약) 체결되어 개국하게 되었다.

다음호에 계속

도통사 제향 봉행



도통사(道統祠) 보존관리위원회에서는 10월 24일(화) 11시 충북 음성군 생극면 방축리 387-4에 위치한 도통사에서 70여 명의 참제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제향을 봉행했다. 도통사에는 안동권씨(安東權氏)를 비롯하여 순흥안씨(純興安氏) 등 6개 성씨 선조들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안동권씨에서는 국재공(菊齋公) 권보(權溥, 추밀공파 13세) 선생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안동권씨에서는 권오협 문충공 종중 회장, 권오섭 문충공 사무국장, 권태수, 권영수, 권오달, 권혁중 족친 등 6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제향에는 권태수 족친의 헌신적인 수고가 있었다.

권행완 편집국장

추밀공파 화산부원군 추향제 봉행



2023년 10월 8일(일요일) 10시 경기도 파주시 장단군 하포리에 위치한 묘역에서 권정택 행주서원 원장 등 전국 각지에서 50여 명의 후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 復, 17世), 좌랑공(佐郎公 溫, 18世), 부정공(副正公 旭, 19世) 추향제를 봉행했다.

추향제는 강신례, 참신례,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유식례, 망료례 순으로 진행되었다. 화산부원군 향사에는 초헌관 권상택, 아헌관 권동욱, 종헌관 권국현이 헌작하였다.

권정택 행주서원 원장

2023년 부호장공파 파조 추향제 아홉 번째 봉행



부호장공파(副戶長公派: 회장 권주연)는 파조(派祖) 아홉 번째 추향제를 10월 14일(음력 8월 30일) 오전 11시 안동시 어가골길(태화동) 일원정(一源亭)에서 참제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고 질서정연하게 봉행(奉行)하였다. 이날은 24절기 가운데 열일곱 번째 절기인 한로(寒露)가 1주일째지만 전형적인 가을 날씨로 춥지도 덥지도 않았으나 오후부터는 가을

비가 내려 이날 분정례(分定禮)는 권기영 제례위원이 글을 쓰고 초헌관 권오석(權五錫), 아헌관 권기병(權奇柄), 종헌관 권오인(權五仁), 축관 권영상(權寧相), 집례 권기영(權奇嶸)씨가 각각 담당하였다.

코로나19로 추향제를 2년간 봉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코로나가 다소 완화됨에 따라 작년보다 추향제를 봉행하고 있다.

파조 추향제에서 다섯 헌관들은 검정색

제복(祭服)으로 갈아입고, 제례위원들은 도포(道袍)와 유건(儒巾)을, 참제원들은 평복(平服)에 유건(儒巾)을 쓰고 1시간가량 경건하고 엄숙하게 봉행하였다. 권기영 집례는 어려운 한자로 쓴 봉기(笏記)를 낭독하면 권오중 제례위원장은 쉬운 우리말로 번역해서 알아듣도록 설명했다.

추향제가 끝나자 권오석 도유사(都有司)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바쁘신에도 불구하고 파조 추향제에 참석하여 주어서 대단히 고맙다"고 인사한 후 "족친들은 무엇보다도 건강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권주연 회장은 내년 추향제 때 도유사로 선임된 권기병 아헌관에 대해 권기영 제례위원이 쓴 망기(望記)를 전달했다.

추향제가 끝나자 죽친 전원은 안동시 서동문로 38(태화동) '농민후계자식당'으로 이동,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불고기를 곁들여 점심 식사를 한 후 헤어졌다.

권영건 보도부장